

# 코로나 재확산에 개장 첫 주말 대체로 한산

### 일제히 문 연 전남 해수욕장 가보니

### 15곳 시간대·인원 사전 예약제

### 발열체크·손목 밴드 착용 필수

### 마스크 쓴채로 물놀이 즐기기도

“코로나가 무섭지만,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며 놀면 괜찮아요.”

피서철을 맞은 주말인 지난 9일부터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재확산 탓인지 주말임에도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맛비 뒤에 찾아온 폭염을 피하기 위해 삼삼오오의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다.

10일 여수의 웅천,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장등, 거문도, 안도해수욕장 등 9곳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전남의 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밀집도 완화 차원에서 날짜·시간대·인원(최대 5인)을 선택하는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운영중이다.

여수 웅천 해수욕장도 이날 3개 시간대(오전 9시~정오·정오~오후 3시·오후 3~6시)에 방문 예약한 총 1100여 명이 해수욕을 즐겼다. 피서객들은 발열체검사를 하고, 방역요원이 건네는 ‘안심 손목 밴드’를 손목에 착용하고서야 입장이 허락됐다.

까다로운(?) 절차를 뚫고 입장한 피서객 대부분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바닷물에 뛰어드는 아이들조차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바다뿐 아니라 화장실 등 공용시설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거리두기 또한 잘 지켜

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왔다는 김진태(48·여수)씨는 “입구에서 발열체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충분히 두고 놀면 그나마 낫지 않겠냐”면서 “아이들에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마다 방역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사전 예약제를 채택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아 이용객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웅천 해수욕장을 포함 15곳의 해수욕장에서 사전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다.

발열체검사와 적정 인원을 제한하는 사전예약제 해수욕장은 그나마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방역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웅천해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도 “오늘 여수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했지만, 집에서 좀 멀어졌더라도 사전예약제가 있는 웅천해수욕장을 찾

았다”고 했다.

이날 더위를 피해 웅천해수욕장 뒷편에 바로 붙어 있는 웅천천수공원 캠핑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나무로 된 데크 45개면과 노지 캠핑장 25면 등 총 70면의 캠핑공간 중 35개가 사전 예약으로 가득 찼다. 캠핑장도 가족단위와 친구들끼리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캠핑장을 찾았다는 김민호(36·여수)씨는 “낮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저녁 시간대에는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면서 더위를 피할 생각이다”면서 “나중에 가족과 또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캠핑장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캠핑 공간을 하나씩 띄어 거리를 두고 예약 받는다”면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서 캠핑까지 즐기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정병호·김창화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9일부터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11일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을 찾은 휴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11일 사전예약을 하고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을 찾은 휴양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 학동 참가 합동분향소 종료 한 달 동안 5739명 참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지 한달째인 11일 운영을 종료하고 12일 철거된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사고 희생자 9명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가 12일 오전 9시 동구청장과 동구 직원들의 참배를 마지막으로 철거에 들어간다.

한달 동안 시민들이 찾아 헌화와 추모를 한 합동 분향소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는 동구청장과 동구 직원 등의 헌화 및 묵념 후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유족에게는 일대일로 담당하고 동구 공무원이 대신 영정을 전달한다.

운영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은 총 5739명에 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광주 북구 3년 연속 우수상

광주시 북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받는 ‘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민선 7기 들어 3년 연속이자 2013년 이후 9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 내 집적화된 디자인산업과 연계한 세대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미취업자 디자인 실무인재 양성 ▲지역기업 제품, 패키지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중장년, 여성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핵심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3개 일자리 사업에서 확보한 사업비 26억 8000만 원을 투입해 736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 남구 진월동 복합운동장 15일 착공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복합운동장이 들어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5일 진월 복합운동장 착공식이 열리고,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된다. 진월제 주변 2만4047㎡ 부지에 들어설 복합운동장에는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장을 비롯해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남구는 10여년의 담보상태에 머물렀던 진월동 복합운동장은 남구의 요청에 광주시가 66억원의 보상을 편성하면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관원 전남지원

###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22곳 형사입건·22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44곳을 적발했다.

11일 농관원 전남지원은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나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2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례 중 축산물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고기 19건, 닭고기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축산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062-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임 광주경찰청장에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

###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유임

신임 광주경찰청장으로 김준철(사진)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유임됐다.

정부는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을 신임 광주경찰청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준철 신임 광주청장은 해남 출신으로 서울 남

강고, 경찰대(57기)를 졸업하고 입관, 보성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과장(이상 총경), 전남·광주청 1부장, 대통령경호처 경찰관리관(이상 경무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냈다.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기게됐다. 강진 출신으로 금호고·경대(27기)를 졸업한 김남현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

기북부경찰청장으로 옮긴다.

보성 출신인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치안감 승진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게 됐고 고흥 출신인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치안감 승진에 따라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맡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환경부 12~31일 접수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정책 및 감축 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리며,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www.me.go.kr) 또는 미세먼지 통합뉴스룸(www.blueskyday.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dahye@ubrain.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실현 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3점)

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8월 중 환경부와 미세먼지 통합뉴스룸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상작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상작 중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올해 겨울 3차 계절관리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커다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공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